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

조길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년사》 2014년 1월 1일 단행본 11페이지)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자면 모든 경제사업의 첫 공정인 인민경제계획사업부터 그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높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다.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생산경영활동조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끊임없이 변하며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경제적연계가 비할바없이 복잡해진 조건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비상이 높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물론이고 나라의 전반적경제

를 활성화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는 인민경제계획사업체제와 방법을 세울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조직화되고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다.

인민경제계획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 문제와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옹호해 결함시키는 문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본질상 당과 국가의 요구,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운다. 이것은 집단주의를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에서 철저히 고수하여야 할 원칙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 때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인다고 하여 개별적기업소나 지역들의 독자성과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의 지도통제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데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만약 개별적기업소나 지역들의 독자성과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활동의 자유화, 분권화를 허용한다

면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에서는 개별적기업소와 지방의 독자성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경제를 자유화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요소도 철저히 경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철저히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에서 매개 기업소와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에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사회주의경제의 집단주의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자면 다음으로 계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사업의 기본수단인 계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계획지표를 통하여 전국각적인 경제발전의 방향과 규모, 그 발전수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뿐아니라 인민경제부문, 지역 또는 공장, 기업소별로 계획과제와 그 보장조건들을 밝혀준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계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중앙과 지방, 웃기관과 아래단위사이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것이다.

계획경제라고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화하여야 한다는 법

은 없다.

경제건설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들과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할 중요지표들을 맡아 계획화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설비, 자재의 범위안에서 해당지표를 맡아 계획화할수 있게 지표분담을 하여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물려진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기업소 자체의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아래계획단위들이 그것을 맡아 계획화하도록 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계획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맡아 계획화하는 경우 자체로 수요를 찾아 그것을 계획에 맞물리고 수요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받아들일수 있다.

이와 같이 계획지표를 국가지표, 성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등으로 분할하여 계획화하도록 하면 계획사업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도 아래 단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계획사업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할수 있다.

같은 계획지표를 가지고 여러 계획단위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계획과제를 확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례로 세멘트생산계획지표가 국가지표인 경우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과제를 타산하고 세멘트공장에서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타산하여 자체로 세멘트생산계획과제를 확정 한 다음 생산경영활동을 벌릴수 있다. 이것은 세멘트생산계획지표가 국가지표라고 하더라도 기업소자체지표로 계획사업이 진행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계획지표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그것이 비록 국가계획지표라고 하더라도 계획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기업소에 그것을 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리용하여 생산능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야 우리나라 경제를 하루빨리 활성화할수 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자면 다음으로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은 수요단위가 생산단위에 주문을 제기하고 수요자와 생산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주문에 따라 생산과 공급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은 인민경제계획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업체들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합리적인 계획화방법이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경제지도기관들과 생산단위들이 자기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실지 그것을 쓰는 단위들로부터 주문을 받기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알수 있을뿐아니라 품종, 규격, 재질, 용도별로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으로동을 절약하고 낭비를 없앨수 있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은 보장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한다.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관리의 개선은 주로 생산자원의 보장성에 의존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에서는 모든 단위

들이 주문에 의하여 자기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장악할뿐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자원들의 보장가능성을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리하여 수요와 보장조건이 정확히 맞물려진 계획과제를 확정할수 있게 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바로 적용하자면 우선 주문계약으로 계획화하는 지표들의 대상범위를 바로 확정하여야 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도입한다고 하여 모든 계획지표들이 다 그 대상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전력, 석탄, 금속, 화학제품 등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수단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소비품들은 현재 국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생산량범위안에서 국가가 직접 틀어쥐고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재를 보장해주고 계획과제를 시달해주는 방법으로 계획화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생산수단들과 소비품들은 주문계약으로 계획화하는 지표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않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생산할수 있는것은 주문계약에 기초한 방법으로 계획화할수 있게 허용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물의 경우에도 국가가 자재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계획화하는것과 주문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획화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야만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중요생산물들

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일수 있다.

국가가 자재를 직접 보장해주고 계획화하는 지표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표들은 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방법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 기업소지표는 물론이고 성지표, 관리국지표들도 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방법으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창발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바로 적용하자면 또한 주문순차를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주문순차를 규정한다는것은 매개 단위들이 자기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확정할 때 어느 단위의 주문부터 먼저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순서를 규정한다는것을 말한다.

만일 기업소들이 주문을 받아 수요를 확정할 때 해당 주문의 인민경제적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자의대로 계획과제를 확정한다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관리원칙을 실현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적인 범위에서 실리를 옳게 보장할수 없다.

주문순차는 해당 주문의 인민경제적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자면 주문순차를 성, 지방, 기업소주문의 순서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성의 주문을 먼저 받아들이거나 지방의 주문을 먼저 받아들이며 마지막으

로 다른 공장, 기업소들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계획사업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바로 적용하자면 또한 수공급통로를 알려주는 정보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이 은을 내자면 모든 단위들에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며 그 질은 어떤가 하는 상세한 정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가적인 범위에서 생산제품목록과 그 생산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힌 도서나 다매체출판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컴퓨터망으로 자료기지를 구축해놓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광고 같은것도 진행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주문계약에 기초한 계획화방법을 받아들이면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우리는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